

Morning Calm March 2016
Korea Airlines Inflight Magazine
by Mark Eveleigh, an internationally renowned photojournalist
- facilitated by Henry Bong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방의 이반족 전통 예술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서북부 사라왁 지방 이반족의 예술적 전통은 그들이 과거 행했던 '머리 사냥' 풍습에 종종 가려지곤 한다. 하지만 재능 넘치는 이반족 여성들은 영적이고 빼어난 직조 기술로 전사 못지않은 존경을 받았다.

LIVING THE DREAM

The artistic heritage of the Iban of Sarawak, Malaysia, has often been overshadowed by tales about their head-hunting past. In the old days, though, the most talented women of the tribe attained just as much respect as the warriors through their weaving.



“꿈에서 무늬를 본 후에야 천을 짤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무당을 찾아가 제가 그 문양을 짤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무늬가 강력한 영적 힘을 지닌 문양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공물을 바쳐야 하고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방의 이반족 여성 피오리타 실베스터의 말이다. 이반족 여성 중에 ‘푸아 콤부’라는 직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실베스터는 그중 한 명이다. 정교함과 견고함에서 독보적인 푸아 콤부는 오래전부터 이반족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천을 짜기 전에 공을 들여 실을 묶어야 하기 때문에 푸아 콤부를 완성하기까지 길게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꿈을 가짜로 꿀 수는 없는 법이죠. 혼령들이 무늬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다 줘야만 직물을 끝까지 완성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실베스터의 말이다. 그녀가 앉아 있는 수동식 베틀 아래에는 전통 공물이 담긴 범랑 접시가 놓여 있다. 접시에는 조상을 달래기 위한 빈랑나무 잎사귀와 그녀가 꿈에서 본 무늬를 짜는 동안 ‘강철의 힘’으로 그녀를 악령에게서 지켜줄 쇠못이 있다. 그녀가 영감을 받은 문양의 모티프는 말려 올라가는 정글고사리와 동물이다. 이반족의 고대 직물은 대부분 뱀과 악어로 장식돼 있다. 최상급 푸아 콤부에서는, 이반족의 이상적인

“I have to dream my designs before I can start weaving,” says Fiorita Sylvester. “Once I’ve had the dream I must check with a shaman as to whether I’m qualified to weave the particular motif. If it is a design with powerful spiritual motifs, I must also make offerings before I start.” Sylvester is one of the few remaining Iban women who know how to weave the intricate *pua kumbu* textiles that have always been a sacred part of life for the people once known as the Sea Dayaks of Sarawak. The finest pua kumbu might take up to two years for a woman to complete since the threads are painstakingly tied before they are woven.

“You can’t fake the dreams,” Sylvester continues, “because only if the idea for the design has truly been brought to you by the spirits will you ever have the strength to finish the textile.” As she sits at her backstrap loom, an enamel plate under the threads bears traditional offerings: betel leaves to appease the ancestors and a single iron nail to give the weaver the strength of steel to protect her from dangerous spirits during the weaving

여성상을 나타내는 여신 쿠망을 찾아볼 수도 있다.

사라왁 지방의 주도 쿠칭에 위치한 튜주가 재단 박물관은 푸아 콤부 직물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학예사 제넷 노엘은 이반족의 직조 기술과 관련된 금기 사항을 낱알이 꿰고 있다. “예를 들어 문양에 악어를 넣는다면 물고기 같은 먹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고픈 악어가 베를 짜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어의 입을 짜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악어 입을 벌려둔 채 놔두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튜주가 재단은 이반족의 자부심인 푸아 콤부 직조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지만, 믿기 힘들 만큼 정교한 직물을 짜는 전통 기술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 가운데 이를 배우려고 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드문 형편이다.

쿠칭에서 남동쪽으로 4시간 이상 걸리는 레마낙 강변에 위치한 응에마 울루 롱하우스는 이 지역에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몇 남지 않은 전통 통나무집 군락이다. 지붕을 엮은, 단단한 목재로 만든 일종의 통로인 ‘루아이’가 열다섯 집을 나란히 이어준다. 루아이는 2미터 높이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데, 롱하우스 주민들은 루아이에서 사교 활동을 펼친다.

of her dream. Motifs include the curling strands of jungle ferns as well as members of the animal kingdom. Many ancient textiles are decorated with serpents and crocodiles, and some of the greatest feature Kumang, the Iban equivalent of Eve and the epitome of woman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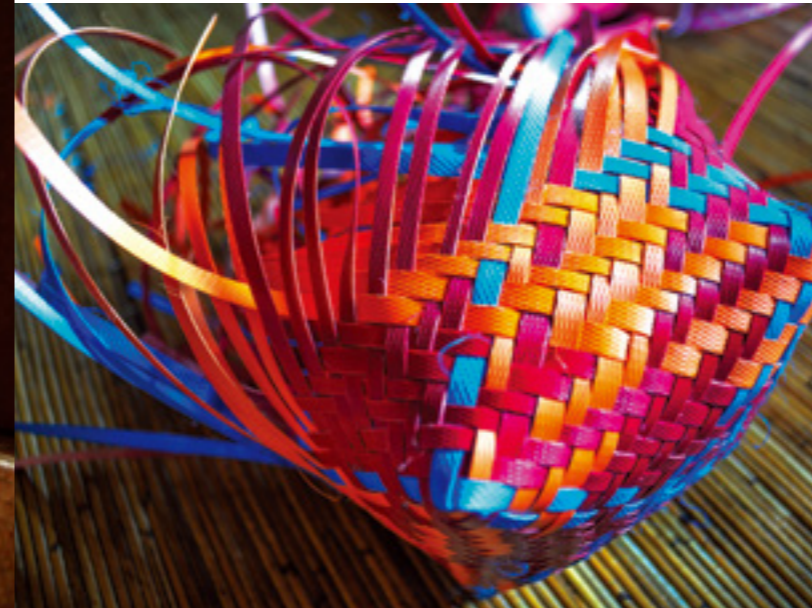
The Tun Jugah Foundation Museum & Gallery, in Kuching, is arguably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see pua kumbu textiles. Curator Janet Noel is a mine of information on the taboos involved in traditional Iban weaving. “A crocodile shouldn’t be tied into a design until its prey, such as a fish, is included — otherwise it will be hungry and dangerous for the weaver,” she explains. “And if you start to tie the mouth of a crocodile you must complete it in the same sitting. You can’t leave a crocodile overnight with its mouth open, for obvious reasons.”

The Tun Jugah Foundation is working hard to promote the tradition of Iban weaving, but these works of textile art are so incredibly intricate that very few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are willing to invest the time needed.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있는 응에마 울루 롱하우스에서 한 이반족 여성이 돛자리를 엮고 있다(왼쪽 페이지). 천연 재료로 만들던 바구니는 오늘날 플라스틱 끈과 만나 독특한 미감을 선사한다(아래). 이반족 전통 예복을 입은 여성(오른쪽).

At Ngemah Ulu longhouse in Sarawak, Malaysia, an Iban woman works on a sleeping mat of rattan and bamboo (opposite). Plastic strips are now used along with natural materials to make baskets (below). A woman wearing traditional Iban regalia (right).





젊은 이반족 남성이 문신을 하는 것은 이반족의 신념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한다(왼쪽). 머리 사냥을 하던 시절, 문신은 용맹한 전사의 징표였다.

A young Iban man receives a hand-tapped tattoo, which he says will stand as a proud reminder of his people's beliefs and traditions (left). In head-hunting times, tattoos were marks of prestige for warriors.

LONGHOUSE LIFE Ngemah Ulu longhouse, southeast of Kuching on the Lemanak River, remains one of the few relatively unspoiled timber longhouses in the area. The covered hardwood *ruai* that runs along the front of the 15 family homes is raised on stilts about 2m above the jungle floor. The *ruai*, or "main street" of the longhouse, is where the social life of the community takes place.

When I arrive, the women are working on beautiful baskets and finely woven rattan and bamboo sleeping mats. "There are none of the legendary pua kumbu weavers left here now," the headman's wife tells me, "but then the headhunters too are a thing of the past."

In Iban life, the duties of men and women have always been strictly separated. Only women could produce pua kumbu, but only men were allowed to carve the giant hornbill sculptures. Ornatly decorated with human figures and animals, the sculptures were seen as symbolic weapons. Once complete, they would be set outside the longhouse and pointed toward the enemy. These days, there are stories of hornbills being used to curse a neighboring longhouse that has recently won the local soccer cup (the idea being that hornbills will peck out the eyes of the enemy, causing a serious handicap in soccer).

"I learned basketry from my mother," says one of the longhouse women as she eyes the tangled mass of bamboo strips in front of her, "but the young girls are less interested in producing fancy mats these days, and the young boys don't care about hornbills unless they are on tattoos." These days, everything is expected to be more durable, and some baskets are made with colorful plastic strips to reinforce the corners.

It is a central tenet of Iban art that designs can evolve: Just as the carved hornbills often feature soccer players on their backs and the baskets are partly plastic, the pua kumbu are also evolving. After all, nobody can dictate the dreams of the weaver. **Text and photographs by Mark Eveleigh**

롱하우스의 생활 이반족 가옥인 롱하우스에서 여인들은 아름다운 바구니를 엮거나 정교한 돛자리를 짠다. "전설적인 푸아 콤부 장인은 이제 남아 있지 않아요. 머리 사냥꾼 역시 다 옛날이야기죠." 촌장 아내의 말이다. 이반족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남자는 절대로 베를 짜지 않으며, 여자 또한 머리 사냥을 하지 않았다. 여자만이 푸아 콤부를 짤 수 있었으며, 그런 한편 이반족의 독특한 전통인 거대한 의식용 코뿔새를 조각하는 일은 오로지 남자의 몫이었다.

사람과 동물 형상으로 장식된 목재 코뿔새 조각상은 상징적인 무기로 여겨졌으며, 최고의 전사들에게만 코뿔새 조각이 허용됐다. 완성된 코뿔새는 집 바깥에 적을 향하게 매달아두었다. 요즘에는 지역 축구 대회에서 가장 최근에 우승컵을 차지한 이웃 롱하우스에 저주를 내리기 위해 코뿔새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는 코뿔새가 날카로운 부리로 적의 눈알을 쪼아 축구 경기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저는 어머니한테 바구니 세공을 배웠지만 요즘 여자아이들은 이런 돛자리 만드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남자아이들은 문신이 아닌 이상은 코뿔새에 관심이 없어요." 한 롱하우스 거주 여성이 자신이 엮고 있는 대나무 직물을 주의 깊게 살펴며 말했다. 요즘에는 바구니에 플라스틱 끈을 이용해 가장자리를 보강하기도 한다. 자연 재료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끈의 조합은 뜻밖에도 멋진 제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디자인은 진화한다'는 것이 이반족 전통 예술의 핵심 신조다. 코뿔새 조각상에 축구 선수를 조각해 넣기도 하고 바구니에 부분적으로 플라스틱 끈을 사용하듯, 푸아 콤부의 면면도 진화하고 있다. 푸아 콤부 장인이 꿈에서 무엇을 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글 사진 마크 에벌리**

찾아기는 길

쿠알라룸푸르에서 쿠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매일 여러 편 뜬다. 쿠칭은 사라왁 주의 주도이며, 사라왁 주는 시바 주와 함께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을 구성한다. 쿠칭은 그리 넓지 않은 도시로, 여러 관광지 사라왁 강 가까이에 있거나 강변을 따라 위치해 도보로 다니기에 좋다. 디트헬름 여행사(www.diethelmtravel.com)는 이반족의 전통 가옥인 롱하우스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쿠칭에서 차로 4시간, 배로 1시간 걸리는 응에마 울루 롱하우스에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된 이반족의 공동체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기다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열다섯 가족은

어느 곳에서 만난 이들보다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추천 숙박지

빌리지 하우스(www.secret-collections.com/villagehouse)는 아시아 지역의 소규모 체험형 호텔, 숙소 및 크루즈선을 연계하는 연합 '시크릿 리트리츠'의 멤버다. 쿠칭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산투봉 산자락에 위치한 빌리지 하우스는 열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2인실을 제공한다. 사라왁 미술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이곳의 공용 라운지와 레스토랑은 이반족의 의식용 코뿔새 조각상 중에서도 빼어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쿠알라룸푸르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Kuala Lumpur daily.

GETTING THERE

There is a plethora of daily flights from Kuala Lumpur to Kuching, the capital of Sarawak, which along with Sabah state comprises Malaysian Borneo. Kuching is fairly compact, with most of the attractions near or along the Sarawak River, so it is possible to get around on foot. Diethelm Travel (www.diethelmtravel.com) offers visits to a traditional Iban longhouse. Community life in Ngemah Ulu longhouse (a four-hour drive from Kuching and an hour by longboat) has changed little over the years, and the 15 families who live under this one extended

roof are among the most hospitable and friendliest people you will ever meet.

WHERE TO STAY

The Village House (www.secret-collections.com/villagehouse) is a member of Secret Retreats, a collection of small experiential hotels, lodges and cruises around Asia. Located at the foot of Mount Santubong, 35km north of Kuching, it offers beautiful double rooms with a tropical feel. The public lounges and restaurant — a virtual museum of Sarawak art — boast a particularly fine collection of Iban ceremonial hornbills. In

쿠칭의 바틱 부티크 호텔(www.batikboutiquehotel.com)은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강에서 무척 가깝다. 시티다인스 업랜드스 쿠칭(www.citadines.com)에서는 침실 1개가 딸린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다.

추천 레스토랑

쿠칭에는 훌륭한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식당이 다수 있지만, 기왕이면 이반족이나 다른 사라왁 부족의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잘란 심팡 티가에서 가까운 더 디악이 있다. 시내 도처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식 커피숍에서도 맛있고 저렴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주변 명소

사라왁에서 푸아 콤부 직물과 이반족의 뿌리인 디악족이 수백 년 동안 무역으로 얻은 골동품 구슬을 보려면 툰주가 재단 박물관(www.tunjugahfoundation.org.my)이 단연 최고다. 사라왁 박물관(www.museum.sarawak.gov.my)의 구관은 1891년 건립되었으며, 사라왁 지역의 수십 개 부족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테마별로 전시관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인 직물 박물관은 식민 시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 3개 층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 사라왁 민속촌(www.scv.com.my)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레마낙 강둑의 대형 보트 Longboats on the bank of the Lemanak River

Kuching, Batik Boutique Hotel (www.batikboutiquehotel.com) is a chic, modern hotel that is just a short walk from the river. Citadines Uplands Kuching (www.citadines.com) offers one-bedroom executive suites.

WHERE TO EAT

Kuching's restaurant scene includes outstanding Malaysian, Chinese and Indian restaurants, but the place to try traditional dishes of the Iban and other Sarawak tribes is The Dyak, just off Jalan Simpang Tiga. Tasty, affordable fare can be found at one of the many *kopitiam* (Malaysian-style coffee shops).

WHAT TO SEE

The Tun Jugah Foundation (www.tunjugahfoundation.org.my) is probably the best place in Sarawak to see *pua kumbu* textiles and antique beads. The original building of Sarawak Museum (www.museum.sarawak.gov.my) was built in 1891 to display artifacts from the dozens of Dayak tribes. It has numerous departments, including the Textile Museum, which occupies three floors of a beautiful colonial-era building. If you do not have time to visit a Dayak community, consider visiting Sarawak Cultural Village (www.scv.com.my).